

독감백신, 비싼 수입품이 효과 높다?

효능차이 놓고 의료계-식약청 공방 ... 국내공급 9.2%가 수입 완제품

보건소에서는 5000원 내외, 일선 병·의원에서는 1만5000-2만5000원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의 제품별 효능 차이 여부를 두고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료계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일선 병·의원들은 국내제품은 약 1만5000원, 수입 완제품은 약 2만5000원을 받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각 제품 사이에 효능 차이 여부를 놓고 제약기업, 당국, 의료계 사이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수입 완제품 공급기업 일부는 “기존 백신은 맞은지 2-4주에 항체가 형성돼 6개월 정도 예방효과가 있지만 수입제품은 접종 후 1-2주만에 항체가 형성돼 예방효과가 약 1년 간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을 하러 온 환자들에게 수입기업의 안내문과 같은 내용을 설명해 주며 “어느 쪽을 맞겠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완제품 백신은 국내제품보다 약 50% 비싼 9000원 내외에 일선 병·의원에 공급되고 있다. 2004년 국내에 공급된 인플루엔자 백신 1700만명분 중 수입 완제품은 9.2%인 157만명분이다.

이에 대해 전국의 백신 확보 현황을 점검하는 질병관리본부는 “항체 형성에 걸리는 시간, 면역능력 지속기간 등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백신에 대한 검정과 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도 “국산제품이든 수입 완제품이든 국내에 유통되는 백신은 100% 유기수은계 화합물인 <치메로살>이 방부제로 들어 있는 사(死) 백신이며 일부 외국에서 사용되는 값비싼 생(生) 백신은 수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돈벌이를 위해 별 차이도 없는데 일부러 비싼 백신을 권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의료계를 매도하려는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균주 등 원료가 같더라도 제조기업이 다르고 제조공법이 다르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원료가 같은 사백신이라도 백신 원액을 수입해 국내에서 분주·포장하는 제품과 수입 완제품 사이에는 치메로살 함유량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항체 형성기간, 면역능력 지속기간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임상자료를 내놓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10/26>